



# 마취약 "셀비진(Cervizine)" 공급 개시

- 지회통한 단체 구입 9만원, 선착순 공급 -

지난 5월 1일부터 새로운 사슴전용 마취제 "셀비진(Cervizine)"이 본격 공급에 들어갔다.

"셀비진"은 미국 FDA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마약 무함유 제품으로 50ml 용량이며 두당 마취 용량은 엘크의 경우 4~5cc, 꽃사슴의 경우 2~2.5cc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엘크의 경우 한병당 10두 정도, 꽃사슴의 경우 20~25두 정도를 마취시킬 수 있어 두당 마취 가격대가 월등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마취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월말 부안지회 총회시 엘크 성록에 4cc를 주사한 결과 마취 상태 및 마취 후 작업 효율, 회복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절각철이라도 5cc 정도면 마취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회복제 또한 마취약과 1:1로 정맥주사하면 유효한 효과를 발휘, 회복제의 별도 구매도 필요없다.

마취약 셀비진과 회복제 안타고질을 합한 세트당 가격은

지회를 통한 단체 구입의 경우 9만원, 개별 주문은 9만5천원에 공급되고 있다. 이는 발송비와 포장비 등이 별도로 지출되는 것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으로 본회는 각 지회에 공문을 발송, 가급적 지회단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마취약과 회복제의 별도 구입도 가능하다. 마취약만 별도로 주문할 경우 6만원, 회복제만 별도로 주문할 경우 3만 5천원에 공급된다.

셀비진 한세트 공급 가격을 9만원으로 기준했을 때 협회가 재정적으로 도움받는 부분은 세트당 7~9천원선이 될 것으로 예견되며 마취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연도말 결산을 통해 세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5월말경에는 셀비진을 공급하는 미국 업체 대표가 직접 방한, 셀비진을 통한 마취 요령 및 적절한 사용방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계획에 있었으나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한국양육**

